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❺ 〈석보상절〉 3권 싯달타 태자



▶ 한줄요약

〈석보상절〉 1, 2권은 없지만 〈월인석보〉에 준하여 스토리텔링을 유추할 수 있다. 〈석보상절〉의 3권은 정반왕이 아시타 선인을 불러 태자의 관상을 보게 한 일화부터 싯달타 태자의 가계 등이 담겨 있다.

싯달타, 부처될 예언을 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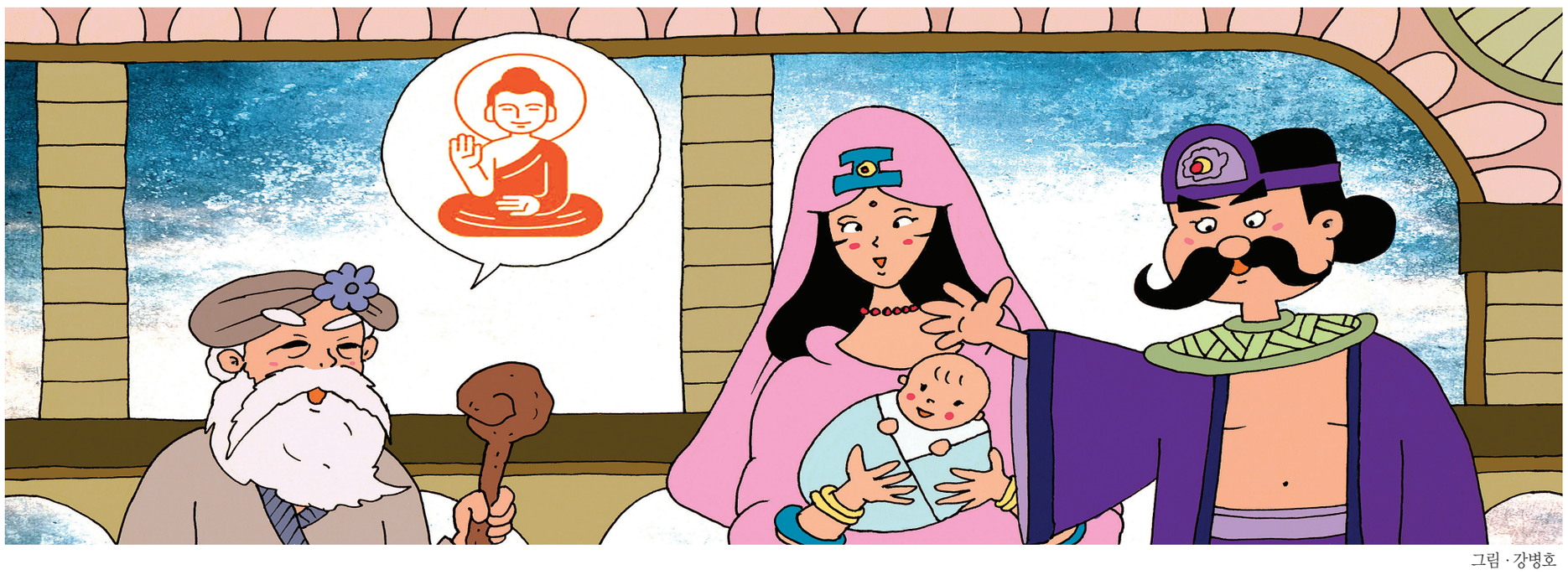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석보상절 1, 2권 전해지지 않아
월인석보에 준해 스토리 짐작해
아시타 선인 예언 · 가족 관계 등
석보상절 3권 싯달타 출생 담아

전하지 않는 1, 2권의 내용

드디어 본격적으로 〈석보상절〉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동안은 〈석보상절〉 1권이 전하지 않아 〈월인석보〉에 전해지는 〈석보상절〉의 서문을 읽어보았다. 현재 〈석보상절〉 1, 2권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월인석보〉 1, 2권이 전해져 그에 준해 〈석보상절〉의 스토리텔링을 짐작해 볼뿐이다. 〈월인석보〉 1권은 〈월인천강지곡〉 1장부터 11장까지 실려 있고 〈석보상절〉은 고타마 붓다의 전생이야기, 선혜와 구이가 석가모니와 야수다라의 전생 부부였다는 이야기, 불교의 세계관과 우주관, 시간과, 인류의 탄생과 모계 사회 출현, 삼세 부처님의 명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2권은 〈월인천강지곡〉 12장부터 29장까지 실려 있고 〈석보상절〉은 석가모니의 가계와 석가모니 임신 이야기, 마야부인의 출산과 탄생의 상서, 탄생 시기의 중국 이야기, 재동제군 교화와 도교의 불교귀의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월인석보〉가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편하여 수정보완한 책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다만 얼마만큼 다르거나 중복되는지는 석보상절 원본이 발견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반왕이 관상가를 부르다

정반왕이 태자의 상(相)을 볼 사람 오백명을 대보전(大寶殿)에 모아 태자를 보이시니 모두 사뢰었다.

"출가하시면 성불하시고 집에 계시면 전륜왕이 되실 것입니다."

(성불은 부처의 도리를 이루는 것이다)

또 사뢰었다.

"향산의 아사타 선인처럼 될 것입니다."

그 선인이 즉시 허공에서 날아 오거늘 왕이 태자 데리고 나오셔서 무릎 꿇으려 하셨다.

아사타가 두렵사리 말리면서 사뢰었다.

"삼계 가운데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합장하여 절을 올리고 울거늘, 왕이 두려워 하며 '어찌 우는가' 하시니 〈아사타 선인이〉 사뢰었다.

"태자께서 삼십이상 팔십종호를 갖추시니 마땅히 출가하셔서 부처가 되실 것입니다. 나는 늙어 그때는 이미 무상천으로 가 있을 것이니 법화를 미처 보지 못할 것이므로 우는 것입니다.(그때 아사타의 나이 백스물이었다. 법화(法化)는 부처께서 큰 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시어 사나운 사람이 어질게 되는 것이다)"

지금으로 치면 관상가 500명을 전국에서 불러 모아 갓 태어난 왕자의 관상을 보게 했다는 것이다. '아사타 선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훼손되었는데 이렇게 풀이한 것은 〈석가씨보〉와 〈과거현재인과경〉의 같은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살펴보면 '향산에 아사타 선인이 다섯 가지 신통을 갖춘 훌륭한 분인데 관상을 보고 싶어하는 정반왕의 마음을 알고 허공에서 날아왔다는 것(香山大仙阿私陀者°具五神通能斷王疑°彼仙應念騰空到宮)' 이다. 그러므로 '아사타 선인'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축원하니 정반왕이 직접 만나 태자의 미래를 묻고 싶어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불본행집경〉 권7에도 아사타 선인이 '오욕을 버리고 참다운 아라한이라 공경하고 섬겼다' 고 하는 내용이 있어 방증이 된다.

그 아사타 선인이 태자가 삼십이상 팔십종호를 갖추어 부처가 되실 것을 예언한다. 그리고 그의 나이 이미 120살이라 그 모습을 살아서 뵙지 못할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괄호로 표시한 내용이 훈민정음 사전에 해당하는 '협주' 이다. 출가하시면 성불한다고 하면서 성불의 뜻이 '부처의 도리를 이루는 것' 이라 쉬운 표현으로 정곡을 찌르고 있다. 왠지 우리는 '성불하십시오' 를 언제부터인가 '안녕하세요' 인사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석보상절〉이 전하는 '부처의 도리를 이루십시오' 라고 정성을 다해 말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보통의 관상가는 태자의 관상을 부처와 전륜왕 두 가지로 예언을 하였으나 아사타 선인은 바로 부처가 되실 것을 알고 '법화' 를 입지 못할 것을 슬퍼한다. '법화(法化)' 는 훈민정음 사전에서 '부처께서 큰 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사나운 사람이 어질게 되는 것' 이라 정의한다. 이것이 불교의 교화인 것이다. 사나운 사람이 어질게 되는 것. '어질다' 는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 는 뜻이다. 이렇게 〈석보상절〉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모국어의 깊이를 새롭게 음미하게 된다.

태자의 이름 살바실달

태자 태어나신 지 이레째인 사월 보름날 마야부인이 돌아가셔서 도리천으로 가시니 오만 범천梵天은 보병 잡고 이만 마처(魔妻)는 보루(寶縷)를 잡아 호위하였다.(보병(寶甁)은 보배로 된 병이다. 마처는 귀신의 아내요 보루는 보배로 만든 실이다)

태자가 태어난 지 1주일만에 어머니 마야부인이 별세한다. 가는 곳은 도리천이다. 선덕여왕이 임종하며 도리천에 장사지내란 한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5만 명의 범천과 2만 명의 마처가 보배로운 병과 실을 들고 마야부인 가는 길을 호위한다. 마처를 귀신의 아내들이라 하였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호위 신장의 역할을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왕이 바라문을 많이 청하시고 태자를 안고 나가셔서 이름짓게 하시니 모두 사뢰었다.

"태어나실 적에 길하고 경사스러운 상서가 많으시니 이름을 살바실달이라 하시지요.(살바실달은 가장 좋다 하는 말이다)"

허공에서 천신이 북치고 향피우며 꽃을 뿌리고 말하였다.(천신은 하늘의 신령이다)

"좋으십니다."

그렇게 마야부인을 떠나보내고 어린 태자를 위한 후속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우선 정반왕은 아들의 이름부터 바라문을 청하여 짓는다. 길하고 상서로운 경사가 일어난 태자 탄생에 좋은 의미를 담는다. '살바실달(薩婆悉達)' 은 'Sarvasiddhārtha' 를 음사한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길상의 의미(一切義成 · 一切事成)이다. 그러니 가장 좋다는 말이 된다. 훈민정음 사전 풀이는 볼수록 무릎을 치게 되는 불교초심자용 설명이다. 그 이름에 다시 천신들의 동의와 축하가 이어진다.

양어머니 대애도, 마하 파사파제

한 신하가 왕께 사뢰었다.

"태자가 어리시니 누구에게 기르도록 하시겠습니까. 오직 대애도 부인이어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대애도는 가장 도리를 사랑한다는 뜻이니 서천(인도) 말로는 마하 파사파제니 난타의 어머님이시다)

왕이 대애도에게 가서서 '젖먹여 기르라' 하시니 대애도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태자 살바실달의 양육을 마야부인의 언니 대애도에게 맡긴다. 대애도는 가장 도리를 사랑한다는 뜻 그대로 인도 말로 마하파사파제(Mahāprajāpatī)이다. 동생으로도 나오지만 〈석보상절〉 6권에서는 언니가 용모가 마야부인만 못해 둘째부인이 되었다는 주석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인간적인 이 설명에 웃음이 나온다. 대애도는 나중에 난타의 어머니가 되니 싯달타와 난타는 이복형제가 된다. 그렇게 이모이자 어머니가 된 대애도는 싯달타 태자를 양육하게 된다.

태자의 두 번째 이름 천중천

왕이 대애도에게 말씀하셨다.

"태자 모시고 가 천신제하는 데 절하게 하시오."

하고 가시는데 군신과 채녀, 제천이 풍악을 울리며 따라 갔다.

하늘 제사하는 데 가시니 만들어진 상(像)들이 모두 일어나 태자에게 절하며 사뢰었다.

"태자는 천인 가운데 가장 존귀하시니 어찌 우리에게 와서 절하려 하십니까." (천인(天人) 중(中)은 하늘 사람 가운데라는 말이다)

왕이 놀라 찬탄하며 이르셨다.

"내 아들이 천신 가운데 가장 존귀하니 이름을 천중천이라 하여라."

(천중천은 하늘의 하늘이니 부처의 둘째 이름이시다. 하늘제하는 데 가실 때 부처의 나이 세 살이니 주나라 소(昭)왕 28년 병진(丙辰)이다)

정반왕은 태자를 천신제에 데려가게 하는데 천신들이 태자에게 오히려 모두 절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태자가 천인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임을 오히려 증명하는 계기가 되어 태자는 '하늘 가운데 하늘' 이라는 두 번째 이름을 가지게 된다. 이때가 중국의 달력으로 계산하면 주나라 소왕 28년은 기원전 1024년이 된다.

이 내용에 대한 게송이라 할 수 있는 월인천강지곡은 30장부터 32장에 해당한다. 그 월인천강지곡은 다음 이야기에서 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석보상절은 월인천강지곡의 게송이 뒤따르는 불교경전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사타선인의 말대로 태자가 출가하게 될까 걱정하는 정반왕의 노심초사가 그려진다. 인도의 계절에 맞춘 세 개의 궁궐을 짓고 풍류 잘하는 아름다운 처녀 500명으로 모시게 하는 눈물겨운 노력이 펼쳐지는 이야기를 기대하시라.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대상 : 전국사찰 법당서 소리 체험 후 선택 (제주도 포함)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19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